

# 제4강

# 20세기와 21세기

- 20세기의 여명-1901년의 선진국의 세계상

말뚝으로 뒤덮인 길, 옷으로 구분되던 사람들의 신분

대다수 국가의 사람들은 여전히 왕정(monarchs) 치하 – emperors, kings, princes, khans, shahs, sultans, rajahs

서유럽에 의해 그려진 바깥 세상- 유럽이 규정한 세상의 출현 imagined communities became realities, 서유럽과 그 밖의 세계 (western Europe and the rest)

새로운 개념의 확장, '인권', '시민권'... '선거권'

'국민 국가'의 탄생, 산업화와 발전, 독재 왕정

유럽의 확장과 수축되는 세계의 '다양성' – 다시 좁아지는 세계

기독교, 비 유럽의 종교가 되다

- 인구와 경제: '멜더스' 생존 사이클로부터의 탈출

식량과 인구의 관계 변화, 농업 생산성 증가, 경제 성장, 인구 폭발

빨라지는 시간

좁아지는 공간

생각의 이동(migration of ideas)

물자의 이동

사람의 이동

# 20세기와 21세기

- 과학과 기술의 폭발적 발전  
확장되는 인간의 수명
- 인류의 절반: 여성  
공적 영역,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남성의 압도적 지배  
'여권' 개념의 출현과 확장  
노동 시장의 출현과 여성의 진출  
'가사 노동'의 절망과 저주를 해방시킨 기술  
여성의 예측을 완화시킨 노동시장
- 교통과 통신, 기술의 발전  
무선 통신-19세기의 인터넷, Titanic 침몰 사건  
메스컴과 시민, 대중 문화의 출현, 대중 정치, 이념의 출현, 국가의 동원력과 통제력
- 진정한 세계 시장의 출현  
노예 무역과 농산물, 기호품의 세계적 네트워크, 경제의 폭발적 성장과 부의 축적
- 막강해진 국가, 기술과 무력으로 무장한 강력한 국가  
저항 세력의 약화
- 유럽 국가들의 제국화와 그 추종자들  
민족주의와 국민의 출현  
국민국가의 제국화와 유럽 대륙의 평화  
식민지의 소멸과 격화되는 충돌, 제국들의 합종 연횡, 전략의 출현과 전쟁

# 21세기의 새로운 현실

- 서구의 짧은 평창과 종언
- 동서 냉전의 종식과 Pax-Americana
- Second World의 등장, ANICS, BRICs
- 정치, 경제의 새로운 그물망
- 정치, 경제, 문화를 둘러싼 주도권의 정치
- 새로운 글로벌 Issue들과 새롭게 규정되는 세계의 정치경제 지형
- 분쟁과 갈등, 새로운 질서의 모색
- World Government의 출현 가능성
  - World Government를 향한 자생적 질서의 출현
  - 자족적 세계의 소멸
  - 절대적 상호 의존
  - 국제 기구
  - 통화 제도
  - 시민 사회
  - 물리 환경
  - 문화 환경
- 통합인가 갈등인가?